



고창소방서, 상하농원 수영장 물놀이 안전교육

고창소방서(서장 백승기)는 지난 1일 상하농원 '파머스빌리지 수영장' 개관에 따라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안전관리요원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남원소방서, 휴가철 차량화재 예방 당부

남원소방서(서장 김광수)가 본격적인 휴가철이 다가옴에 따라 장거리 운전 및 차량 에어컨 장시간 사용 등으로 인한 차량화재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안전운전 및 차량 점검을 당부하고 나섰다.

남원경찰,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우려지역 점검

남원경찰서(서장 강태호)는 불법촬영기기 설치로 인한 성범죄 발생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공중화장실과 다중이용시설에서 불법촬영 탐지기기(렌즈형 2대, 전파형 1대)를 활용하여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김성재(전민일보 이사) 모친상= 빈소: 전주뉴타운장례식당 401호, 발인: 4일(토) 오전 9시, 장지: 익산시 춘포면 선영하

국제로타리 최초의 여성 총재 탄생

국제로타리 3670지구, 제50대 박인숙 신임 총재 취임식

익산서동로타리클럽 회장을 역임한 박인숙(58)대현건설 대표가 국제로타리 3670지구(전북지역) 제50대 총재에 취임했다.

지난 1일 오후 7시경 전주시 관내에 있는 라한호텔(구 코야호텔)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김균 국제로타리 이사, 윤상구 로타리재단 이사,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강팔문 새만금개발공사 사장, 이환주 남원시장, 유재구 익산시의회 의장, 한명규 JTV 사장, 오태식 전 총재, 조용식 전북경찰청장, 82개 클럽회장단 및 임원진 및 지인 등 700여명이 참석했다.

1957년 전주로타리클럽으로 시작한 국제로타리 3670지구 창립 50주년 역사이래로 여성 총재로서는 최초이다.

박인숙 신임 총재는 "코로나19로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각종행사 취소되는 상황하에서도 지난 1년동안 마크나일 멀로우니 회장의 테마 '세계를 연결하는 로타리'를 통해 3670지구를 하나가 되게 열정적으로 봉사해 주신 2019-2020년 오태식 총재를 존경과 경의를 표하며 로타리발전과 지구를 위해 항상 애정을 보여주시는 지역 역대 총재, 박종환 차기 총재, 차차기 총재와 지구임원 및 로타리 지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특히 "국제로타리 2020-21년도 테마는 '기회의 문'이다. 흘러크나와 리회장은 '기회의 문'이라는 메시지



를 통해 우리가 꿈꾸는 세상은 다함께 힘을 합하여 지구촌과 지역사회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창조적 변화를 끊임없이 실천하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야 하며, 그 중심에 로타리인들이 함께 했을 때 로타리가 더욱 성장하고 지역사회에서 발전할 수 있다"고 전했다.

박 총재는 "기회의 문이라는 테마를 실천하기 위해 2020~21년도 총재 운영방침과 목표는 ▲회원증강(5000여명→6500여명/여성1000여명, 남성5000여명 회원증강) ▲클럽지원 및 강화(지도자육성, 균형 잡힌 봉사활동 권장, 신생클럽 창립) ▲인도주의 봉사집중 및 확대(소아마비 퇴치, 지속가능한 봉사, 국제적으로 중요한 대표 프로젝트 개발) ▲공공이미지 강화 및 인식확대(로타리 핵심가치 홍보, 이미지와 브랜드인식의 통일성을 갖고 실천주위의 봉사활동의 홍보) 등의 일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미희 익산소방서장, 취임 후 바쁜 행보 주목

전전미희 익산소방서장은 취임 후 지역내 다중밀집대상에 대해 각종 안전사고 및 화재예방을 위한 현장 방문 지도에 나서는데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이번 현장방문은 많은 시민들이 찾는 익산역을 찾아 각종 소방시설의 관리상태 점검과 자율안전관리 강화로 화재 등 재난을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또한 익산역은 하루 평균 2만 여명의 시민이 이용하는 곳으로 재난 발생 시 대원 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곳으로 철저한 안전관리와 위험 요소 확인 등이 필요하다.

이에 전 서장은 2일 익산역을 방문하여 소방시설의 관리상태 점검 및 화재취약요인 예방지도, 안전시설 유지·관리, 소방충돌로 확보 방안, 위험요소 등을 꼼꼼히 살폈다.

끝으로 익산역 관계자를 대상으로 자율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소방안전 컨설팅을 통해 안전의식 고취에 힘을 보태며 또한 안전관리 유지에 따른 애로사항 청취 등 소통의 끈도 놓치지 않았다.



전미희 익산소방서장은 "다중밀집대상은 화재발생 시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관계자들의 안전의식 강화 및 지속적인 안전교육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을 당부하며, 시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소방점검 및 출동대세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리공고 신유진, 춘계 중고 육상서 원반던지기 '한국신기록'

이리공업고등학교 육상부 신유진(통신과 2)은 제40회 춘계 전국중고등학교 육상경기대회에 출전, 51.36m로 한국 신기록을 달성했다.

이는 전년도 기록인 51.05m에서 31cm를 더 던진 것이다. 이 대회에서 이리공고 육상부는 신유진의 원반던지기 1위(부별 신기록 한국고등학교)를 비롯해 해머던지기 1위(홍

승연, 통신과3) 해머던지기 1위(홍종호, 통신과3), 원반던지기 2위(기계과3, 나인성) 등의 성적을 거뒀다.

이리공고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훈련에 많은 역경이 있었으나 이를 극복하고 좋은 성과를 거둬 지도 선생님들과 학교에 큰 영광을 안겼다"고 말했다.



익산병원, 코로나19 극복 희망 캠페인

익산병원 신상훈 병원장은 최재길 전북서부보훈지청장의 지명을 받아 지난 1일 '코로나19 극복 희망 캠페인'에 동참했다.

신상훈 병원장은 "#함내세요 대한민국, #극복해요 코로나19, #이겨내요 익산시민, #익산병원이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응원메시지를 병원 홈페이지 및 SNS에 게재했으며 다음 주자로 익산상공회의소 양희준 회장을 지명하여 릴레이를 전달했다.

신상훈 병원장은 "코로나19로 전 국민이 힘든 시기지만 서로 격려하는 마음이 모이면 극복할 수 있을거라 믿는다. 이럴 때 병원 환경을 안전하게 유지해 병원 내 확산을 막는 것이 지역 대표 의료기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며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해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익산병원 익산병원은 차별화된 선별진료실과 감염진료부스(워킹스투)를 운영하고 있다. /익산=장영원 기자



진안읍, 가막유원지 자연 정화 활동

진안읍 진안읍 행정복지센터(읍장 배원기)는 지난 1일 행정복지센터 직원 및 주민들과 가막유원지 일대 자연정화 활동을 전개했다.

가막유원지는 금강 상류의 깨끗한 물과 아름다운 자연 풍경으로 매년 휴가철 많은 방문객이 찾는 진안의 대표 관광지 중 하나다.

이날 정화활동에는 비쁜 농번기에도 불구하고 유원지를 방문하는 방문객들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유원지 제공하기 위하여 하가막마을 주민들이 앞장섰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진장소방서, 무주군 당산대교 실종자 합동수색

무진장소방서(서장 박덕규)는 2일 무주군 적천로에서 김모(53)씨가 귀가하지 않는다는 실종 신고에 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하여 수색작업을 펼쳤다.

소방서에 의하면 김씨는 치매와 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무주경찰서에 실종신고 접수된 건으로 2일 오전 4시 30분경 무주군 무주읍 당산대교 위 짐장다리에서 서성이는 모습을 CCTV에 보이다 사라진 후 모습이 잡히지 않아 합동수색을 요청한 것이다.

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하여 총 50여명이 수색작업과 구역을 나눠 수색에 임했으나 안타깝게도 10시40분경 무주센터 앞 농수로에서 숨진채 발견해 무주의료원으로 이송조치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북도청 인사: 인사, 인사, 인사. List of appointments and transfers across various government departments and agencies in North Jeolla Province.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Advertisement for the digital newspaper service.